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4년5월1일 (수) 제 837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양영우·편집인/ 정수환
인쇄소 靑丘文化社

어머니주일
설교

위대한 믿음, 어머니의 믿음

<마태15:21~28>



함미라 목사 (후세교회)

오늘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28절)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인가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아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여기 흉악한 귀신에 들려 힘들어하는 딸을 가진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은 어머니에게는 자기가 아픈 것 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무력하여 연약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15절29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리리 호숫가에 이르러” 라고 하기에, 예수님은 오직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머니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7:25)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14:36) 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어떤 병도 다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기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낫게 하리라 결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22) 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당신은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23절에 제자들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냉정합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안되니까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강하게 간절하게 “주여 저를 도와

소서” 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용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인내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배우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주여 옹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선조들을 쫓아내고 죽인 원수 같은 존재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아마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기에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안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개>는 떠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같이 살고 돌보며 키우는 개를 의미합니다. 그 개들은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부스레기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먹고 만족하며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에는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와서 만난 1세 어머니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 가나안 여인들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차별과 편견속에서 무시당하고 가벼운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싸움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해 왔을 것이고, 많은 한숨과 눈물을 흘리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버리지 마소서, 꿈에라도 좋으니 제발 만나 주시어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어머니들의 믿음을 떠올리며 그녀들에게 배우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더라도 도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서여성회

제72회 정기대회 개최

신 회장에 이은주권사(横浜) 선출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72회 정기대회가 3월 20일(수) 동경교회에서 9교회 대의원 28명 중 24명 출석으로 개최되었다.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4명의 여성회 임원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개회예배는 김근식목사(한사랑교회)에 의한 '받으시는 예배, 반송되는 예배' (사 1:16-17)라는 제목으로 설교와 축도, 성찬식 사식은 곽은주목사가 진행했다.

회의는 각부 보고, 임원 선거, 예산안 심의 등으로 진행되고, 승인을 받았다.

새 임원은 아래와 같다.

- 회 장 : 이은주(요코하마) · 부회장 : 이민례(니시아라이)
- 서 기 : 이혜숙(동경) · 부서기 : 강영옥(가와사키)
- 회 계 : 고희선(시나가와) · 부회계 : 안성미(요코하마).

(보고 : 이혜숙)



서부여성회

제37회 정기대회 개최

임원 개선에서 부서기 외는 전원이 유임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37회 정기대회가 4월 11일(목) 오후 11시부터 무코가와 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6개 교회에서 대의원 17명, 그 외 8명이 배석했다.

개회예배는 윤희자 부회장의 사회로 한승철 목사(고베동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3:11-26)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양영우 목사(무코가와 교회)가 성찬식을 집례했다.

양용자 회장의 개회사 후 개회선언이 있었고 참석자와 내빈을 소개했다. 이어서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전국여성회 총무)의 축사가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시작된 회의에서는 총괄 보고와 결산 보고 등이 이어졌으며, 임원 개선에서는 결원한 부서기 한 명을 제외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유임이 결정되어 새로운 임원이 구성되었다.

다음 년도 예산안이 승인되어 2024년도 활동방침안이 확정되었다. 폐회예배는 양용자 회장의 사회로 한세일 목사(고베교회)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 (빌립보서 3:7-14)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후 축도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한사람 한사람은 미력하지만 주안에서 하나되어 주님께 영광돌리는 서부여성회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보고 : 최미혜자)



중부여성회

제64회 정기대회 개최

신 회장에 김은숙집사(豊橋) 선출



2024년 4월 11일(목) 제64회 중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정기대회가 나고야교회에서 열렸다. 개회예배에서는 김명균 목사가 '은혜로 강건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내용을 우리의 상황에 대입하여 교회여성들에게 격려와 과제를 전했다. 이어 성찬식이 진행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나누었다.

개회식 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의사일정으로 넘어가 활동보고와 선거가 진행되었고, 토요하시교회의 김은숙 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다.

폐회예배에서는 전병옥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 전쟁, 물가상승 등 여러 징후로 보아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전했다.

이번 정기대회는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가 되었다. 또한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성회가 탄생한 전도소도 있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눅 18:27)을 강하게 실감했다. 평일 행사 개최,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과제는 있지만,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중부여성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임원은 아래와 같다.

- 회 장 : 김은숙 (豊橋) · 부회장 : 신숙희 (名古屋)
- 서 기 : 카네마츠 미네오 (名古屋) · 부서기 : 김숙지 (豊橋)
- 회 계 : 김진명 (長野) · 부회계 : 이정자 (名古屋)

(보고 : 이정자)



관서여성회

제71회 정기대회 개최

회계 연도 개정을 승인

2024년 3월 23일(토) 교토교회에서 관서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71회 정기대회가 11개 교회 42명의 대의원 중 32명의 출석(방청 6명, 배석 2명, 내빈 3명)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서는 김종권 목사(히라노)의 '사마리아, 여자, 목마름' (요한복음 4장1 ~ 15절)이라는 설교가 있었고, 성찬식은 아라이유기목사(교토남부)의 사식으로 진행했다.

김인희회장을 의장으로 하여 진행된 회의에서는 관서지방교회 부회장 모리 가쓰노리 장로의 축사가 있는 후, 사회부장 추천과 회계연도 개정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모든 순서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 천말선)



관서신학원

2023년도 졸업식 거행

연구과 3명 졸업, 앞으로 교회 봉사

2023년도 관서성서신학원졸업식이 3월 17일 오후 3시 본 학원(오사카 북부교회)에서 거행되었다. 금년에도 주로 졸업생과 관계자를 중심으로 모여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예배는 본 신학원의 교무인 조영철목사(오사카북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본 신학원의 교수이며 금년 12월에 은퇴예정인 정연원목사(오사카교회)가 본인도 졸업하는 심정이라고 하며 <살아있는 죽음> 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 후에 학원장 김무사목사(오사카니시나리교회)에 의한 졸업증서 수여식이 있었고, 이어서 관서지방회 회장인 박영자 목사(도요나카제일부흥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본신학원의 이사장인 전성삼목사(후세교회)의 축도로 졸업예배를 마쳤다.

금년도에 졸업한 신학생은 연구과 졸업생으로서 강은혜(오사카교회), 송승미(오사카교회), 강명미(오사카북부교회) 3명이었다. 이들 3명은 본과를 졸업한 후에 연구과에서 3년동안의 배움을 정리하여 각자 논문을 써서 제출하였고, 앞으로 교회와 사회에게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서성서신학원은 1984년에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섬기는 인재양성, 교회봉사를 위한 신도교육과 훈련, 그리고 신학형성을 위해 관서지방회를 중심으로 설립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고: 조영철목사)



중부지방회

신도공동연수회 개최

김종현목사를 강사로 맞아 2번에 걸쳐

3월 20일(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종현 목사(나니와교회)를 강사로 초빙하여 나고야교회에서 중부지방회 신도공동 연수회를 개최하여 65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최화식 목사가 '신앙의 메인터너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강사인 김종현 목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웨 이레의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의 강연을 가졌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화 이후에 시행된 이번 강연을 통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가졌다.

(보고: 김성언목사)



岐阜教会

예배당 헌당식을 거행

최부자 명예권사 추대식도 동시에

4월7일(주일) 오후4시에 기후교회 창립71주년 기념 헌당식과 최부자 명예권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고성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지방회장 최화식 목사(나가노교회)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느헤미야 8:1-12)'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서 최부자 명예권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기후교회는 2016년7월에 노후화된 예배당이 지진으로 파손되어 그 동안 인근 일본기독교단 카요(華陽)교회를 빌려 임시 예배당 삼아 사용하고 있었다. 재해로 인한 뜻밖의 긴급 건축이었기 때문에 예비된 건축 예산이 거의 없었지만 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것을 맡기고 기도드리며 나아간 결과 교회당 파손후 2년 2개월만에 새 교회당이 건축되었고 그 후 4년 3개월 만인 2022년 4월에 건축 용자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코로나 사태로 헌당식이 미루어졌다. 건축과 헌당에 있어서는 우리 총회 내의 교회와 기후교회 신도,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 교회와 여러 형제 자매로 부터 기도를 통한 정성어린 헌금이 모였다. 신축 교회당은 목조2층 구조로 1층이 교회시설, 2층이 목사관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태양광 발전과 바리야프리 설비가 도입되어 친환경적 요소와 지역전도를 위한 개방적인 설계로 건축되었다. 헌당식에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50명이 넘는 내빈이 참석하였고 하나님께 헌당 드림을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예배와 교제를 나누었다.

(보고: 고성목사)



제1회 상임위원회 개최

일본기독교단과의 협약40주년 일정 등 결정

제57회 총회기 제1회 상임위원회가 2024년 4월 9일 KCC(오사카)에서 개최되어 25명의 상임위원 중 19명, 특별위원장 3명이 참석하여 각종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되었다.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1) 제57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 (2) 캐나다장로교회 재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을 허백기목사에서 김성언목사로 교체.
- (3) 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이상경목사에서 신용섭목사로 교체.
- (4) 동경제일교회 종교법인 규칙 변경 승인.
- (5) 니시야라이교회 종교법인 규칙 변경 승인.
- (6) 서남KCC 이사 승인.
- (7) 이상훈목사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 승인.
- (8) 종간사 사택 입주 청원건은 임원회에 위임.
- (9) 한일대조 찬송가 3쇄 3천부 인쇄하기로 하다.
- (10) 총회신학교 이사 구성 승인.
- (11) 총회 예산안 종간사 업무 변경에 따른 수정안 승인.
- (12) 일본기독교단과의 협약 40주년 기념집회는 2024년 9월 16일 오사카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 (13) 차기 상임위원회는 2024년 10월 15일 KCC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관서여성회

고베·한신지구 예배 개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기도

2024 세계기도일 고베·한신지구 예배가 3월 1일(금) 고베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재일대한국교회 담당으로, 원래 과제로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었으나 예배식문 작성 후인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개시해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기도일을 개최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있었던 전국 여성회 주최의 성서 세미나에서도 배울 기회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십자가에 못박혀 부활한 땅이지만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의해 종종 침공당한 역사가 있다.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고향을 잃고 있다.

이날은 9개 단체 74명(리모트10명 시청)이 모여 한마음으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더욱이 새해 첫날 일어난 노동반도 지진 이재민을 위해 중보기도도 드렸다.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의 실현을 고대한다. (보고 : 최미혜자)



名古屋教会

박양자 명예장로가 소천

교회 부속 영신보육원에서 원장을 역임



지난 3월 19일 나고야교회의 박양자 명예장로가 소천하여 나고야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박명예장로는 1944년 나고야에서 출생하여 1959년6월 나고야교회(김덕성목사)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집사, 권사, 장로(2014년 7월 은퇴),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대장으로 봉사하였다.

1959년 당시의 나고야교회 부속 영신유치원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그 후, 사회복지법인 영신회가 된 영신 보육원에서 보육주임과 원장을 역임하였고, 이사장으로도 일하였다.

또한 얼마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학비 지원기금을 만들어 전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그 관리와 운영을 맡아달라고 하며 기금을 헌금하였다.

자택 책상 위에는 그 동안 성경을 필사해 온 노트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히브리서 도중까지 나란히 중간 부분까지 적혀져 있었다.

일본기독교협의회 총회 개최

김성제총간사가퇴임,이명충목사가부의장으로

3월 11일~12일 온라인 NCCJ 제41회 총회가 열렸다. 2019년부터 큰 역할을 해온 김성제 총간사는 퇴임하게 되었고, 제42회 총회기부터는 오시마 가오리(大嶋果織) 총간사(일본기독교단)가 교육부를 겸무해 착임하게 되었다.

재일대한국교회 (KCCJ) 에서 이명충, 김성태, 김혜진, 이상정, 김신야, 이시바시 마리에, 정시온, 정수환을 대의원으로 파견하여 새 부의장으로 이명충 목사가 선출됐다. 무엇보다 총회에서 일본그리스도교회가 정식으로 NCCJ에 가맹하여 함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다.

제42회 총회기 활동 방침으로서 주제 「그리스도여, 당신의 화해의 생명이, 우리를 드리게 해 주세요」 성구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5:18가 채택되었다.

의안중의 하나인 「젠더 정의(저스티스)에 관한 기본 방침」이 채택되어 상의원회의 아래에 추진 팀(가칭)이 설치하게 되었다. KCCJ안에서도 젠더에 관해서, 더욱 지식을 깊게 총회내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고 : 정수환)

平野教会

민정애 명예장로가 소천

베트남 청년들 선교 등에 봉사



2024년 3월 15일 히라노교회 민정애 명예장로가 소천하여 평야교회에서 김종권 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향년 75세.

故·민정애 장로는 1949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나 1968년 히라노교회 정인수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1991년 장로로 장립되어 교회 성가대, 베트남 청년들 선교에 봉사하는 등, 독신으로 히라노교회를 위해 섬겨왔다.

<住所変更>

東京教会 金君植名誉牧師

〒244-0817 横浜市戸塚区吉田町2014-1

SOMPOケアラヴィーレ210号

Tel.045-515-8893

許伯基牧師

〒903-0125 沖縄県中頭郡西原町上原2-17-2

メゾンエナージ301号

Tel 080-3900-9252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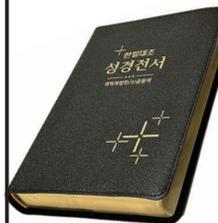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価格：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